

overlapping world

박예나 개인전 : 중첩되는 세계
2021. 11. 21 - 12. 07

- 0 ∞

자로 잦 듯 곧게 펼쳐진 수평선(水平線)이 사실 거대한 구를 이루는 곡선의 일부임을 안 뒤에도, 우리는 그것의 이름을 고치지 않았다. 몸에 묶인 인간의 경험적 인식이란 그런 것이다. 이러한 공간 인식의 문제를 시간에 관한 것으로 돌려놓으면, 우리는 박예나가 만들어낸 세계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그의 작업은 인간의 선형적 시간(linear time)과 자연의 순환적 시간(cyclical time)을 아우른다.

전시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품 <미래 이후의 흙>은 우리의 시간 감각을 아득히 넘어서는 지질학적 시간을 다룬다. 작가는 건물이나 도로 등 도시환경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을 수집한 뒤 분쇄하여 바닥에 가득 채웠는데, 이는 문명을 이루던 모든 것이 오랜 풍화를 거쳐 흙으로 되돌아간 먼 훗날의 땅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오늘날의 문명이 발 딛고 선 땅이 사실 켜켜이 쌓인 과거의 세계들인 것처럼, 지금의 문명 세계도 언젠가는 땅이 될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시간의 대행자로, '수집과 분쇄'라는 단순한 공정을 통해 미래의 풍경을 현재에 소환한다. 그 미래는 관찰하거나 기록할 경험 주체인 인류조차 없는 미래로, 우리에게 무관심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대체로 그 시간을 상상이나 이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미래의 범주를 넘어선 미래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이후의 흙>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타당하다.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는 인공 물질 환경조차, 그 심원한 시간(deep time)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무한 붕괴>는 건축물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붕괴를 통해 땅이라는 더 큰 전체의 일부분이 되는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거대한 순환의 과정을 함축적 이미지로 드러낸다. <○>은 모터에 달린 와이어가 끝없이 원을 그리며 바닥에 미미한 궤적을 남기는 키네틱 조각이다. 가늘땀 와이어가 흙의 요철에 걸려 버벅대며 만드는 변칙적 움직임 때문에, 작품은 땅의 요철을 반복적으로 감지하는 예민한 촉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앞선 작품들이 물질 문명의 죽음 이후를 상상하며 우리의 생애주기를 압도하는 거대한 순환을 다루었다면, <몸들의 죽음>은 일상적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순환을 조명한다. 작가의 방을 청소한 테이프 클리너를 수집하고 쌓아 올린 이 작품은 몸의 부산물인 머리카락, 각질 등을 통해 부분적인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몸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자아내는 풍경은 조각과 건축의 기념비성(monumentality)에 대한 비판적 주석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대문명의 성취를 표상하던 건축적 유산들은 모두 땅으로 돌아갔다. 그 위에 세워진 것은 매일의 죽음을 기록한 얇은 막(tissue)들을 열기설기 쌓아놓은, 견고하지 못한 형상이다. 전시의 주제 의식을 담보한 도상(○)은 빈 허공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저 땅의 표면에 미미하게 쓰여지며, 그 기록의 궤도는 선명하나 궤적은 희미하다.

되풀이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화살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몸에 갇힌 우리는 순환적 시간과 선형적 시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한다. 시간의 두 얼굴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함께 존재하지만 동시에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히 돌아올 것 같은 하루에 속아 삶을 허비하다가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며 허둥대곤 하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너무도 곧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둥근 지구를 떠올리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순환의 주기를 상상한다면 그 경험은 무엇일 수 있을까. 원을 그리며 걷는 사람은 결국 출발지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원이 크면 클 수록, 돌아온 사람은 출발할 때의 자신과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싼 시간 속에서 작은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며 변모하고 있으므로.

몇몇 작품의 형식과 전시 구성 전반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상이한 시공간의 중첩(overlapping)이다. 이는 전시 제목인 <중첩되는 세계>와도 연관된다. 외부세계의 맥락을 소거하여 작품만을 부각하려는 화이트 큐브(white cube)가 아닌 상가 건물의 빈 공간에서 열린 이 전시는, 지역성과 장소성을 전시의 맥락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온다. 개발과 재개발로 끝없이 건물이 지어지고 무너지는 김포의 풍경이 전시장 양측 창문으로 펼쳐진다. 실내 조명을 사용하지 않은 탓에 외부와 내부의 상호작용은 더 긴밀해진다. 관객은 흙만 남은 미래 이후의 김포와 개발이 한창인 현재의 김포를 함께 본다. 물질 문명의 삶과 죽음이 겹쳐진다.

<N번째 땅>은 이러한 시간의 중첩을 영상 언어를 통해 강조한다. 데이터화 된 <미래 이후의 흙>과 김포의 재개발지역이 나란한 화면에 떠오르고, 그 공간을 카메라가 같은 움직임으로 훑어간다. 이러한 시선의 동기화는 전혀 다른 두 풍경을 겹쳐보게 하는 단서가 된다. <몸을 위한 기념비>를 소장하여 겹침의 영역을 전시공간 바깥으로 직접 확장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이후의 파편을 지닌 채 현재를 살며, 중첩된 시간의 전령이 되어보는 것이다.

긴 시간이 지나 결국 모든 물질 문명이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 <지구의 인공 각질>은 그러한 세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미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가상세계는 새로운 시간성을 담보한다. 축적되는 시간, 동시적 시간이라 할 법한 그 시간은 한 번 업로드 되면(거의) 죽지 않는 데이터들이 쌓여 공존하고 있는 시간이다. VR 기계를 통해 그 세계에 접속하면, 이미 흙이 되어 바닥에 깔린 조각들이 생전의 모습과 정보를 유지한 채 유령처럼 무한한 공간 속을 부유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 이후의 땅을 밟고 서서 과거를 보게 된다. 또 다른 겹쳐짐이다.

눈앞에 원을 그려보자(○).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 넓혀 보자(—). 바로 누운 원은 이제 선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 선은 겹쳐진 두 개의 선이다. 원의 둘레를 따라 걸어보자. 어디에서 보아도 우리는 겹쳐진 두 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전시를 보는 일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면 비약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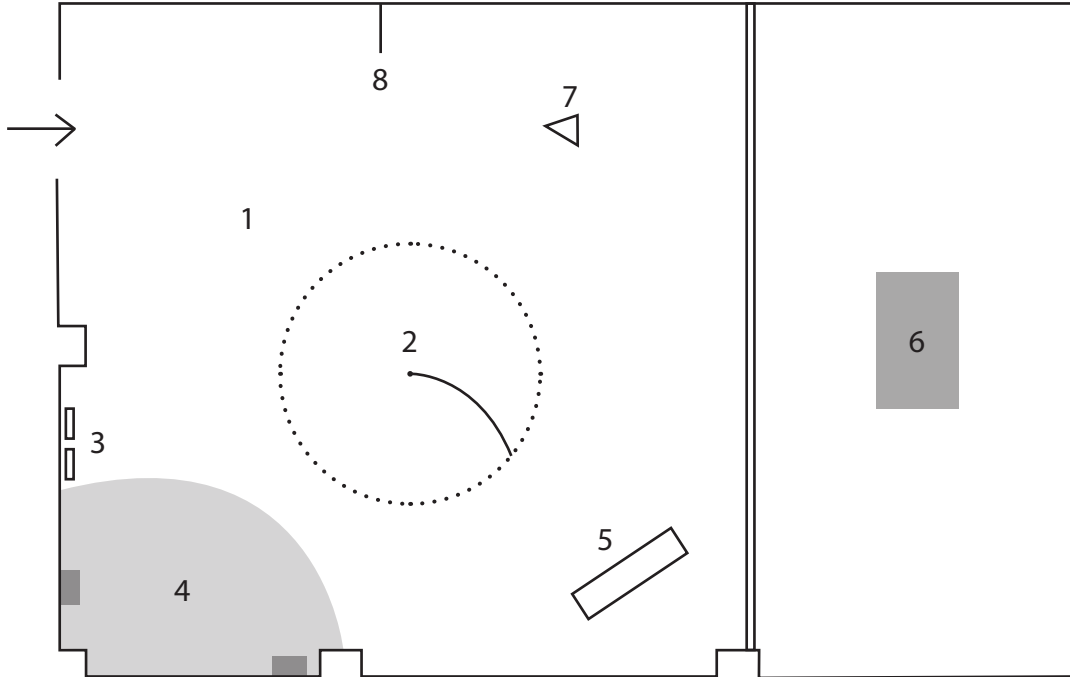
이제 원의 양 끝을 잡아보자. 원은 어느 곳을 짚어도 반대쪽 끝이 생겨나는 도형이니, 어디를 잡든 상관없다. 양 끝을 잡았다면 이를 비틀어보자. 무한대 기호와 닮은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원의 또 다른 양 끝이 한 점에서 만난 모양이다. 원의 다른 양 끝을 잡고 비틀어본다 해도, 두 선이 교차하는 위치는 같을 것이다. 그곳은 원의 중심이다. 나는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

※ 미래 이후에도 가상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곳에 우리의 데이터는 없을까? 가상세계는 여전히 현실의 모습을 참조하고 있을까? 어쩌면 또다른 자연처럼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무엇이 되어있지는 않을까? 그 세계 또한 미래 이후의 흙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있다면? 안내데스크의 초대장이 그 단서가 되어줄 지도 모른다.

임재형

Overlapping worlds



1. 미래 이후의 흙, 분쇄된 인공 파편, 가변설치, 2021
Post-future Soil, artificial debris, variable installation, 2021
2. O, 폐자동차 모터 부분, 철선, 가변설치, 2021
O, motor part of scrap car, steel wire, variable installation, 2021
3. N번째 땅, 두대의 차량용 모니터, 800x480px, 무한 루프, 가변설치, 2021
The Nth ground, two vehicle monitors, 800x480px, loop, variable installation, 2021
4. 지구의 인공 각질, 김포에서 수집한 인공 파편, VR 가상공간, 2021
Dead skin cells of the Earth, artificial debris collected in Gimpo, VR virtual space, 2021
5. 무한 붕괴, 3D 스캔 된 인공 파편 한개, 고장난 티비, 알루미늄 프레임, 1080x1920px, 무한 루프, 2021
Infinite collapse, one 3D scanned artificial debris, broken TV, aluminum frame, 1080x1920px, loop, 2021
6. 목직한 흩어짐, 반투명 가벽, 기계, 가변설치, 2021
Heavy scattering, translucent temporary wall, machine, variable installation, 2021
7. 몸들의 죽음, 테이프 클리너, 개인의 부산물, 높이 50cm, 2021
Death of bodies, tape cleaner, personal debris, height 50cm, 2021
8. 몸을 위한 기념비, 유리 펜던트 목걸이, 분쇄된 인공파편, 가변설치, 2021
Monument for the body, glass pendant necklace, shredded artificial debris, variable installation, 2021

*현재 <Project: Post-future ground> 온라인 페이지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Project: Post-future ground>는 견고하게 여겨지는 현재의 인공 물질 기반 문명이 붕괴한 이후의 세계, 새로운 땅과 존재 방식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영국 글라스고 도시에서 부터 시작하여, 서울시, 김포시 등, 머무는 도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프로젝트의 골조는 '인공 파편 수집 - 3D스캔 후 웹 업로드 - 파편 분쇄 후 흙으로 환원'의 구조로 이루어 진다.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인공구조에서 떨어져 나오는 잔해를 재료로, '3D 아카이브'와 '흙'을 만든다.